

'이드'의 역사성에 대한 탐색

프로이트의 《문명 속의 불만》 《나의 이력서》

임홍빈

고려대 교수 · 철학

《문명속의 불만》(김석희 옮김)에는 <집단 심리학과 자아분석> <환상의 미래> 등이 함께 실려 있는데, 이 문헌에는 프로이트 후기 사상의 요체가 담겨 있다. 프로이트는 인류의 무의식에 침전된 계통사적 흔적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초기의 이론을 수정하고 보완해야 할 필요성에 직면했다. 정신활동은 이제 의식과 무의식, 전의식(前意識)에 의존한 설명의 방식에서 벗어나 자아와 이드, 초자아로 구별되는 위상학적 모형에 의거해서 해석되는데, 이런 이론적 변화와 프로이트의 문명론은 서로 무관하지 않다.

함께 출간된 《나의 이력서》(한승완 옮김)에서 프로이트는 정신분석학의 이같은 이론적 전환의 배경에 대해 비교적 소상하게 밝히고 있다. 《나의 이력서》는 통상적인 의미에서의 자서전이 아니라 정신분석학이란 새로운 학문이 험난하게 성장해온 과정을 진솔하게 정리한 기록이다.

여기서 프로이트는 정신분석학이 처했던 오해, 가령 그가 모든 꿈의 원인을 성적인 충동의 억압에 기인하는 것으로 설명해버린다는 범성욕주나 유아기의 성적 체형을 지나치게 강조한다는 비판 등에 대해 응답하고 있다.

정신분석학이라는 학문의 자서전

그렇다면 초기의 정신분석이론과 문명론은 어떤 관계에 놓여 있는가? 만약 자아가 무의식의 산물에 불과하다면, 이드의 세계에는 인류의 계통발생적인 경험이 축약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 점에서 인류의 문화유산인 신화와 예술·문학·종교 등에 대한 분석이 요구될 수밖에 없었다.

결국 프로이트의 문명론은 단순히 정신분석을 새로운 대상에 적용한 것이 아니라, 무의식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에 의해서 불가피해진 논의의 필연적인 연장선상에 놓여 있다. 따라서 프로이트의 '문명론'은 얼핏 보기에 개인심리학의 이론을 유추해석에 의해서 종교나 예술 등에 적용한 '응용정신분석학'과 같은 인상을 주나 그것은 피상적인 견해에 불과하다. 오히려 이드의 역사성에 대한 탐색을 통해서 전기의 이론적 모형이 변화되었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한다.

한편 이 후기의 저술들에서 프로이트는

프로이트는 결국 인류와 개인의 의식, 생명체의 발생과정에서 나타나는 구조적 유사성을 토대로 인간적 삶의 조건에 대한 총체적인 이해를 시도한다. 서로 모순된 듯한 사태들에 대한 심층적 연관성을 집요하게 추구함으로써 그는 문명의 진실에 한걸음 다가설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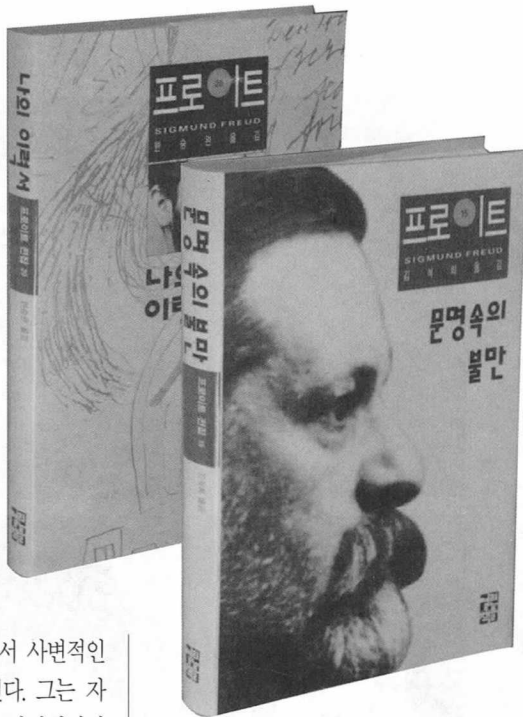
실증적인 과학자의 차원을 넘어서 사변적인 사상가의 면모를 여실히 드러낸다. 그는 자신의 이론 중에서 어느 부분이 사변적이며 불확실한 가설에 의존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솔직하게 밝히고 있다.

가령 서구문명의 특징은 사랑의 신:에로스(Eros)와 죽음과 파괴의 신:타나토스(Thanatos), 운명과 필연의 신:아난케(Ananke)들 간의 대립에 의해서 형상화되고 있다. 물론 에로스적 충동과 죽음충동의 상호 대립에 의존해서 문명과 삶을 설명해온 방식은 그레로부터 되풀이되어왔던 상투적인 구도일 수도 있다.

하지만 이 신화적인 존재들간의 투쟁은 인간의 내면세계에 대한 프로이트의 풍부한 체험과 문화와 예술, 종교에 대한 식견을 통해서 서구 문명에 대한 하나의 훌륭한 해석의 단초를 제공해 준다.

과학적 경험과 철학적 사변이 성공적으로 매개된 프로이트의 문명론은 현대인의 위선과 허구성을 고발하고 있다는 점에서 소박한 종교관에 안주해 온 많은 독자들에게는 새로운 충격으로 다가올 것이다. 종교나 성적 리비도의 경제학을 심정적으로 수용하기 곤란한 독자들도, 최소한 그의 학문적 성실성과 집요함에 대해서는 경탄을 금치 못할 것이다. 프로이트는 종교가 절대자의 초월적 계에서 비롯된 것이라기보다, 집단적 망상에 가깝다고 말한다. 인류의 오래된 그리고 매우 강력한 원망이 종교라는 형태로 제도화된 것이다.

종교는 비록 문명의 발달과정에서 생겨날



수밖에 없는 신경증을 개인적 차원에서 치유해주지만, 기실 종교 자체가 보편적 강박 신경증에 불과하다는 주장이다. 프로이트의 종교해석은 비록 서구의 기독교나 유대교와 같은 유일신교를 중심으로 전개되었다는 한계가 있으나, 종교 및 이와 유사한 집단들의 심리를 이해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준 것은 사실이다. 그래서 <집단심리학과 자아분석>이라는 제목의 글이 <문명속의 불만>과 함께 실린 것은 나름대로 타당한 근거가 있는 것이다.

심층적인 연관 집요하게 규명

여기서도 프로이트는 모든 개인의 내부에 가장 역사적으로 오랜 집단심리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즉 힘센 지도자를 중심으로 권력의 위계질서를 형성하면서 살아온 군집동물로서의 체험이 모든 이드의 내면에 각인되어 있다는 것이다. 집단심리는 리비도의 경제학과 고고학이 서로 매개됨으로써 심층적으로 분석된다.

특히 그는 <문명의 불만>과 함께 실린 <문명적 성도덕과 현대인의 신경병>에서도 현대인의 신경증을 성적 리비도의 경제와 관련해서 설명한다. 인간의 충동은 일반적으로 기본적인 욕구의 충족을 지향하는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는 것이다. 충동 자체는 선과 악의 구별을 넘어서서 작용하지만 공동체 자체의 요구사항과 관련해서 충동은 금지되

거나 아니면 선악의 기준에 의해서 구별되는 것이다. 사람들에게 양심의 가책을 불러일으키고 살인과 근친상간을 금지시키는 일련의 행위들은 모두 본능에 따른 충동의 포기를 요구하는데, 이러한 규범적 명령들이 역사적으로 내면화된 것이 초자아다.

경우에 따라서 인간에게 억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초자아는 문명의 발달이 개인들에게 어떠한 희생을 요구하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따라서 집단신경증과 같은 병적 증세는 오히려 문명의 발전에 의해서 더욱 심해진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문명의 발전은 성적인 만족에 쏠아야 할 리비도가 전용됨으로써만 가능했기 때문이다.

리비도 경제의 관점에서 문명의 진보와 행복은 서로 상충하지 않기 때문이다. 오히려 문명의 진보는 사람들에게 죄책감만을 고조시킴으로써 행복의 상실을 초래하기 심상이라는 것이다. 결국 인간이 스스로의 이성이나 과학기술을 통해서 신의 위치에 도달한다고 하더라도 결코 행복 자체를 성취할 수는 없다.

프로이트는 결국 인류와 개인의 의식, 생명체의 발생과정에서 나타나는 구조적 유사성을 토대로 인간적 삶의 조건에 대한 총체적인 이해를 시도하고 있다. 다른 학문이나 예술, 문학 등에 대해서 보여준 그의 사변적이며 개방적인 태도는 이미 과학적 환원주의에 경도되었던 당대의 정신병리학자들이나 심리학자들에 의해서 받아들여질 수 없었다.

아직도 과학적 환원주의에 사로잡힌 현대의 개별 과학자들에게 프로이트는 난해한 사상가로 비추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프로이트는 서로 모순되거나 무관한 듯이 보이는 사태들간의 심층적인 연관을 집요하게 추적하고 규명함으로써 문명의 진실에 한걸음 다가설 수 있었던 것이다. ❖

열린책들/A5신/각 408, 272면 내외/각 12,500, 9500원